

한국경제

연예인들의 환한 미소, 비결은 라이네이트?

기사입력 2012-01-03 15:40



[이송이 기자] 많은 사람 앞에서 치아를 자주 드러내는 연예인은 외모뿐 아니라 가지런하고 깨끗한 치아가 호감을 주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연예인들은 하얗고 가지런한 치아를 위해 치아 미백, 치아 교정, 라미네이트 등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그 중에서도 단시간에 가지런한 치아를 만들어주는 라미네이트를 선호한다.

라이네이트 시술은 치아의 표면만을 얇게 긁어낸 후 치아모양으로 만든 세라믹 재질의 얇은 판을 부착시켜 앞니를 가지런하게 보이도록 하는 시술이다. 특히 치아가 벌어졌거나, 부러짐, 빠뜨려진 이 개선에 큰 효과를 보인다.

이러한 모양의 치아는 물론 치아교정을 통해서도 바뀔 수 있다. 그러나 적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2년까지 교정기를 착용하고 있어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반면 라미네이트는 빠르면 하루에서 길게는 일주일이면 하얗고 가지런한 치아로 개선이 가능하다.

라미네이트는 미용적인 역할은 물론 상실된 치아의 기능을 보완해주고 치아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 치아가 빠뜨거나 벌어져 있다면 그 사이에 이물질이 끼어 쉽게 충치나 잇몸 염증을 발생시키는데 이러한 치아사이를 메워주면 이를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치아의 일부를 제거한 후 진행되는 부분에서 치아건강을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다. 치아가 많이 제거되는 경우 이가 시리는 현상이나, 음식을 씹을 때 자칫하여 라미네이트가 깨지는 현상 때문이다.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자연치아의 손상을 가장 적게 하면서 라미네이트 시술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한 결정이 중요하다.

강남 화이트스타일치과 치의학박사 김준헌 원장은 “라미네이트 시술은 미용적인 면에서 뛰어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미용적인 면에 치우치기 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시술인지를 알아보고, 시술 경험이 많은 전문의를 찾아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자연 치아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듯 라미네이트 역시 제대로 된 꾸준한 관리를 해준다면, 라미네이트의 보통 수명(7~10년)보다 오래 사용할 수 있다.

한경닷컴 bnt뉴스 기사제보 presslife@bntnews.co.kr

- ▶ **새해 미션! 주방의 묶은 때를 벗겨내자**
- ▶ **2012년, 가장 기대되는 스타 부부 2세는?**
- ▶ **돌싱男 “원수 안 봐서 좋지만, 성욕은 불편해”**
- ▶ **“눈길에도 내가 제일 잘 나가” 겨울철 사고 예방법**
- ▶ **미녀 방청객으로 깜짝 등장한 강유미 “정말 몰라보겠네”**

